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범사업 공모 선정

고체연료 · 바이오차 등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전환생산… 가축분뇨의 미래지향적 처리 방향 제시 '전망'

전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고체연료 · 바이오차)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46억 원을 확보했다.

이에,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그간 퇴비화 중심으로 처리해오던 가축분뇨를 고체연료와 바이오차 생산으로 전환해 처리할 계획이다.

고체연료는 가축분의 수분을 없애 석탄이나 장작처럼 고체로 만든 연료화 생산물을 말한다.

'바이오차'란 Biomass+Charcoal 의 합성어로 바이오매스를 350℃ 이상의 온도에서 산소가 없는 조건하에 열분해해서 만들어진 고체 탄화 물질이다.

가축분뇨는 전북도 '21년 기준, 연간 9백만 톤이 발생하고 있다.

가축사육두수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가축분뇨에 대한 퇴비화 처리 외 에너지화, 정화 방류 등 다각도 처리 방법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고체연료 · 바이오차)시설의 전북도 선정은 더욱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퇴비는 생산 및 살포 과정에서 발생하는 냄새 민원 및 토양에 살포되면서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등 처리 한계로 가축분뇨의 새로운 처리방법이 필요한 상황에서 전북도가 가축분뇨처리 방법 전환을 선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가축분뇨를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원 고체연료는 제철소에 납품될 계획이다.

화석연료 대신 연료로 활용돼 석탄 대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우분 1톤 처리시 온실가스 0.13CO2톤 감축효과가 있으며, 우분 원분뇨 4톤은 우분 고체연료 1톤(3,000kcal/kg)으로 이는 유연탄 0.5톤(5,660kcal/kg)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또한, 바이오차는 여러 분야에 활용함과 더불어, 탄소배출을 억제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역할도 톡톡히 할 전망이다.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가축분뇨의 미래 지향적인 처리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으로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도-서울시50플러스재단, 업무협약

'50+농어촌 워킹홀리데이 in 전북' 사업 추진

서울시 50+세대가 전북서 체류 · 일 · 탐방 등 기회 제공

전북도와 전북농어업 · 농어촌일자리플러스센터(시 · 군센터 포함)는 30일 스마트농생명 오픈랩에서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50+농어촌 워킹홀리데이 in 전북'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50+농어촌 워킹홀리데이 in 전북'은 서울시 50+세대가 전북 소재 기관 및 단체(무주, 임실, 부안)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실제로 농촌에 체류하며, 일과 활동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협약서에는 공동사업과 도농 상생교류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각 기관들은 50+농어촌 워킹홀리데이 in 전북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시와 농촌의 교류 및 협력가치 확산을 위해 50+세대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기회 마련, 홍보를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50+농어촌워킹홀리데이 in 전북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 모집과 교육을 담당하고, 도와 시.군 농어업 · 농어촌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지역 활동처를 모집, 현장인턴십 등 지원, 지역탐방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는 지역살이를 희망하는 서울시 50+세대를 대상으로 4월 중순까지 사업참여자를 모집하고, 사전교육과 활동처와의 간담회를 통해 최종 참여자를 선발 · 파견(5월)한다.

도와 시 · 군 농어촌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는 무주 · 임실 · 부안 활동처에서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현장활동 인턴십과 지역탐방 프로그램을 지원 계획이다.

아울러, 5개기관 공동으로 9월에 참여자 만족도 조사, 평가 회의, 경험공유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성과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지형 도 농촌활력과장은 "서울시 50+재단과 상호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농간 상생협력사업 모범 사례로 확대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문화 '배려풀 전북' 확산

도,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우수사례… 김제 · 완주 · 장수 선정

공직사회 솔선 추진 위한 도 자체 우수사례 4건 선정

전북도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문화 '배려풀 전북'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사례를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

14개 시 · 군을 대상으로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을 공모한 결과, 김제(최우수) · 완주(우수) · 장수(장려) 3개 시 · 군이 선정됐다.

선정된 3개 시 · 군은 민간 기관 또는 기업이 참여하는 사례로 사업을 계획했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김제시는 다자녀가정 후원제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김제아이 웃음 家득, 아빠mom 행복 家득' 사업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사업은 기업에 재직하면서 육아를 맡고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온 가족이 동화책 읽고 동요 배우기, 부부가 함께하는 바리스타 · 디저트 체험, 밀키트 홈파티, 일 · 육아 밸런스 교육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완주군은 관내 기관 · 기업을 대상으로 가족단위 체험 · 힐링 프로그램, 가족친화 캠프, 맘스패키지(크림, 쿠션 등 임신 · 출산 관련 용품 지원) 등을 제안했다.

장수군은 관내 민간기업 직원에게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원(1인당 1백만원)하는 안을 제출해 장려상을 수상했다.

장수군의 경우 관내 출산가능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이 없어 불가피하게 타 지역 산후조리원을 이용해야하는 불편함과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당해 사업을 계획했다고 전했다.

공모 선정된 3개 시 · 군에 사업비로 시상금 42백만원이 지원된다.

최우수로 선정된 김제시는 2,000만원, 우수상을 수상한 완주군은 1,500만원, 장려상을 받은 장수군은 7,00만 원을 지원받는다.

한편, 도는 공직사회의 '배려풀 전북'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도 우수사례 4건도 선정했다.

우수사례로는 ▲축하한 Day, ▲깜깜한 사무실, ▲밝은 가정(9 to 6), ▲가족사랑의 날 with Family, ▲Family 위드 코로나와 같은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신현영 도 대도약청년과장은 "올해는 특히, 민간 기관 · 기업 대상 사업 지원을 통해 출산 · 육아 배려문화가 민간까지 확산 · 정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유호상기자

도 수산기술연구소, 양식시설 무상 방역

전북도가 수산생물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양식어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양식시설 무상 방역'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도 수산기술연구소는 2019년부터 수산생물전염병 예방을 위해 이동식 방역장비를 도입해 운영중이다.

올해도 도내 양식장 1,266개소(해면 515, 내수면 751)를 대상으로 양식장 소독을 희망하는 어가에 무상 방역을 지원한다.

양식장 소독을 희망하는 어가는 양식어업 면허 ·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고 도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수산생물 방역교육을 6시간 이상(최근 2년 기준) 이수해야 한다. 이후, 수산기술연구소 및 관할 시 · 군에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동식 방역장비는 차량 탑재형으로 고압펌프와 700리터의 약제 탱크를 갖췄다. 소독제로는 승인된 수산용 의약품을 사용하며, 소독을 위해 도 연구소 직원을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효과적인 소독을 위해서는 수산생물을 입식하기 전 양식시설 및 기자재를 건조된 상태에서 분무 형식으로 소독하는 것을 권장한다.

소독한 이후, 입식하는 수산생물에 대해 사전 전염병 검사를 받아 건강한 종자를 입식 한다면, 수산생물 전염병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도는 양식장 대표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입식신고, 소독방법, 수산생물전염병 발견 시 조치방법 등에 대한 방역예찰을 통해 전염병 예방 및 방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도, 시-군과 '고향사랑기부제' 협력 강화

14개 시 · 군 합동TF 착수회의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머리를 맞대고, '전북형 고향사랑기부제' 정립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도는 30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세부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도-시 · 군 합동TF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고향사랑기부제 준비단계부터 시.군과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도-시군 합동TF팀 구성에 따른 첫 회의로, 도 · 시군 담당부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일본 고향납세제도 우수사례 분석'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특강 및 질의응답에 이어, 추진방향 설명 및 시 · 군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반영 건의 의견이 제시됐으며, 시.군별 특성에 맞는 답례품 아이템 및 기금사용처 발굴 등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이뤄졌다.

도는 이날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전까지 도-시.군 합동 TF 운영을 정례화할 예정이다.

또한, 행안부-광역지자체 TF 논의와 연계해 도와 시.군이 아이디어를 모아 홍보, 답례품, 기금운용 등에서 전북도만의 특색있는 아이템을 발굴해 간다는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전주에 단독 문화예술회관 건립"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30일 '예술 · 문화 UP' 공약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약속했다.

예총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한국예총 전주지부(회장 김득남)는 단독건물이 없어 종합경기장 내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게다가 예총전주지부 소속 10개 협회는 아예 사무실이 없어 지부장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 후보는 단독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 전주예총 10개 지부 사무실을 입주하게 하고 이 곳을 문화예술 창작공간이자 공연장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의 사랑방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예술과 문화의 힘으로 전주를 업그레이드 하겠다"며 현재 4,900만원에 그친 전주예술제 지원금을 1억원 이상으로 증액하고 전주예총 경상비도 1억원 수준으로 증액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예총관계자는 "전주시 예술예산이 도내 지자체 중 가장 적고 이로 인해 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5천여 예술인 대다수가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실제로 익산과 군산은 경상비가 8,000만원인데 반해 전주는 절만인 4,000만원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우 후보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과 지원을 통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돕겠다"며 "예총의 외연 확대가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공립 치매 전담병원 유치 어르신 시내버스 요금 무료"

유창희 전주시장 예비후보

4개 노인복지 공약 발표

유창희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치매 환자들을 위한 공립 치매전담병원 유치와 어르신 시내버스 요금 무료 등 4개 노인복지정책을 공약했다.

유 예비후보는 30일 전주시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전주의 65세 이상 노인 수가 인구 대비 15%에 이르고 치매 환자 수가 1만여 명에 달한다"며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공립 치매 전담병원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치매 전담병원이 없어 치매 환자 가족들은 비용이 더 드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이용하고 있다"며 "치매 전담병원 설치로 환자나 가족들이 맘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유 후보는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도 제안했다. 유 후보는 "어르신들은 시내버스 요금에도 경제적 부담을 갖는다"며 "무상 버스 시행으로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상 버스 운행은 버스회사 경영지원과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도움을 준다"며 "필요예산은 버스 노선 감축으로 확보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 · 노년층에 대한 정보통신기술(ICT) 지원과 노인 재능 일자리 창출도 함께 제안했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장 · 노년층을 상대로 행정과 금융처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정보화 교육시스템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노인 재능기부 센터를 만들어 노인들의 정책을 반영하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 기회로 활용하는 등 노인 일자리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택시기사 부담 덜어주는 전주플랫폼 조성"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

전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조지훈 예비후보가 소상공인과 택시기사의 부담을 덜고 시민의 편의성을 높인 '전주플랫폼'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배달앱 이용과 택시 호출 시 부과되는 수수료를 없애고 이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주민의 통합형 플랫폼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30일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택시기사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수수료를 없앤 '전주플랫폼'을 신속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는 배달 주문과 택시 호출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으로, 시민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 이용률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현재 소비 패턴의 변화로 배달의 민족이나 카카오택시 등 플랫폼 이용이 일상화된 가운데 몇몇 대형 플랫폼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면서 소상공인과 택시기사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독점적 지위를 통해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독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편리함과 각종 혜택으로 소비자들의 이용률이 높은 만큼 대형 플랫폼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수수료를 낮추거나 없앤 지역형 배달앱 및 호출앱 개발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조지훈 예비후보는 배달주문과 택시 호출을 한 곳으로 통합해 소상공인과 택시기사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를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배달비 역시 저렴하게 낮추고 택시 호출 시 시민들에게 포인트 지급 혜택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시민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지급해 전주플랫폼의 이용률을 높이겠다는 복안으로, 전주의 자본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시민들의 지갑을 두껍게 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힘든 소상공인과 택시기사들이 대형 플랫폼 이용에 따른 수수료로 한숨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를 실제 해소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이는 시민들의 이용률을 높임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시민의 편의성까지 고려해 전주플랫폼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학부모 교통봉사, 공공일자리로 대체"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30일 "초등학교 교통봉사가 맞벌이 부부에게는 부담이 커 교육청 단골 민원이 되고 있다"며 "봉사가 아닌 사회적 일자리로 금전적 보상을 받으며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전주형 스쿨존 안전지키미'를 만들어 어르신 일자리를 위한 투자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실제로 교통봉사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강제성을 띠는 경우가 많아 강제 할당에 대한 민원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당근마켓 같은 중고 애플리케이션이나 맘카페에서는 시급 1만5천원의 소위 '녹색알바'를 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학부모 교통봉사는 학부모가 학교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교육적 활동에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학부모의 무임 노동에 기대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전주형 스쿨존 안전지키미' 사업이 시행될 경우, "맞벌이 부부의 부담은 경감하고, 어르신들은 의미 있는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서 좋을 뿐만 아니라, 교사들 또한 빚쟁이처럼 학부모에게 부탁하지 않아서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가 일 년에 한두 번 나와 교통지도를 하는 것보다 날마다 어르신들이 교통지도를 하면, 교통에 대한 전문성 역시 높아질 것"이라며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학생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어필했다.

/김윤상기자